

SKT, 온라인 채용관 열어

비즈파트너사 인재 채용 지원한다

**- 채용 사이트 ‘사람인’에 SKT 비즈파트너사 위한 채용관 개설…11월까지 운영**

**- 5G, AI, 메타버스 등 ICT 분야의 60여 강소 기업이 인재 등용 나서**

**- 꾸준한 채용 지원 통해 지난 2년간 120개 강소기업이 415명 채용에 성공**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활용 부탁드립니다.** |

**[2022. 3. 8]**

SKT가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비즈파트너사를 위해 온라인 채용관을 꾸린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올해 11월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 메인 화면에 'SKT 비즈파트너 채용관'을 열고 협력사의 우수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SKT 비즈파트너 채용관'에는 5G, AI,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ICT 영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60여 강소기업이 참여해 개발자부터 연구개발, 경영지원, 현장지원 등 다양한 직군의 인재 등용에 나선다.

SKT는 비즈파트너사의 원활한 채용을 돕기 위해 관련 배너를 온라인 사이트 최상단에 배치하고 인재 추천 서비스, 화상 면접 솔루션 등 비대면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솔루션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비즈파트너사가 구직자들에게 제공할 기업 소개, 실무자 인터뷰 형식의 직무 소개 페이지 등 콘텐츠 제작도 돕는다.

인재 채용을 원하는 비즈파트너사는 오는 11월까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채용 공고를 올릴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온라인 채용사이트가 제공하는 구직 중인 인재에 대한 정보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KT의 비즈파트너사 온라인 채용 지원을 통해 지난 2년간 120여개 파트너사가 415명의 임직원을 채용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SKT는 여러 비즈파트너사들로부터 코로나19 로 인재 채용과 회사 홍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20년 온라인 채용관 운영을 시작했다.

안정열 SKT SCM담당은 "코로나 환경에서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는 우수한 비즈파트너사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온라인 기반 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비즈파트너사가 좋은 인재를 영입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문의 : SK텔레콤 PR실 전략PR팀 윤태구 매니저(02-6100-3816)**

|  |
| --- |
| **※ 사진설명**  SKT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온라인 채용관을 꾸린다. SK텔레콤은 올해 11월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 '사람인' 메인 화면에 'SKT 비즈파트너 채용관'을 열고 협력사의 우수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

**<끝>**